



유동성 위기설
롯데그룹
밸류업 등 반전 나서
L1



Life

K뷰티
ODM·OEM·중소 등
제조기업 신성장
L2



AI교과서 도입 눈앞인데... 기기·지원인력 등 인프라 미흡

학교 55%, 인터넷속도 점검 안해
4곳 중 1곳, 디지털기기 '미보급'
지원인력 등 시도교육청별 격차 커
도입 전 종합적인 점검·개선 필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히며 AI 교과서를 내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교 현장은 인터넷 속도와 지원 인력 배치 등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도 천차만별이었다.

◆학교 26%, 무선 인터넷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5년 AIDT 대상 학년(학교) 디지털 인프라 진단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진단대상 학교 1만2090곳 중 54.8%에 해당하는 6631곳이 무선 인터넷 속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점검이 완료된 학교 5459곳 중에

서도 무선속도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1452교(26.6%)에 달했다. 이중 1300개 학교는 교실의 무선AP에서 적정 대역폭이 확보되도록 조치가 필요했으며, 152개교는 최신AP(WiFi6지원)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AI 디지털교과서에 활용되는 디지털 기기의 경우, 1차로 기기 수량을 확인한 학교 6749곳 중 보급이 되지 않은 학교가 1720교였다. 4곳 중 1곳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셈이다. 기기 보급 조사 대상을 전수로 넓힐 경우 보급이 필요한 학

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원인력 배치 등 인프라 미비

이같은 상황은 시도교육청별로 격차가 컸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디지털 기기 수량 보급 진단을 완료한 곳은 9개 지역이다.

대상 학교인 1338곳 모두 진단을 완료한 서울의 경우, 32.5%에 해당하는 435곳에만 디지털 기기 보급이 완료됐고, 나머지 903곳은 아직 보급이 되지 않았다.

강원지역은 573개교 가운데 102개교(17.8%)에서 디바이스 성능개선이 필요했고, 경남은 1001개교 중 419개교(41.9%)가 충전보관함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 인터넷 속도의 경우, ▲대전 307교 중 190교(61.9%) ▲인천 514교 중 268교(52.1%) ▲강원 573교 중 279교(48.7%) ▲경남 1001교 중 374교

(37.4%) 등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서울이 전체 진단 대상 1338교 중 1274교(95.2%)에 디지털 튜터 등 지원 인력을 배치한 반면, 이외의 지역은 ▲경남 1001교 중 38교(3.8%) ▲인천 514교 중 27교(5.3%) ▲강원 649교 중 59교(9.1%) 등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디바이스, 무선 속도 등을 종합 점검·개선해 내년 3월부터 활용에 문제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비롯해 법적 근거, 교과서 제작 및 보급, 교원 연수, 인프라 구축 등 모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추가 인력이 배정된 학교도 53.1%에 불과해,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연세대, 내달 8일 수시논술 추가시험 실시

시험문제 유출 논란에 추가시험 결정
1차 합격자도 선발... 합격생 2배 ↑

'시험문제 유출 논란'을 겪은 연세대 학교가 내달 8일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추가 시험(2차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지난 2차 시험은 물론, 지난 1차 시험 합격자 모두 논술전형 합격자로 처리하기로 했다.

27일 연세대에 따르면, 내달 8일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2차 시험을 시행한다. 다만 2차 시험은 지난달 12일 논술시험(1차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만

응시할 수 있으며, 결시생은 다시 2차 시험을 볼 수 없다.

연세대는 1차·2차 시험에서 모두 각 261명을 논술전형 합격자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합격생 규모의 두 배를 올해 해당 전형에서 선발하게 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예정대로 12월 13일 발표되며, 2차 시험 합격자는 12월 26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연세대는 "학교는 본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매일 점검회의를 진행하며 문제의 원인, 파급 효과, 임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왔다"라며 "법적 판단을 통해 논란의 진실을 규명하려 했으나, 단기간 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타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부와 협의 후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해당 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오로 문제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다시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현진 기자

시흥시, '시군 종합평가' 3년간 경기도 1위

행정역량 입증... 인센티브 4억 확보

시흥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 시군 종합평가'에서 그룹 내 1위(최우수)와 경기도 전체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최우수, 3년 연속 경기도 1위를 달성했다.

이번 성과로 시는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며, 우수한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정과 도정 주요 시책지표를 통해 행정서비스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장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올해 평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행정서비스 실적을 바탕으로, 인구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 '정부 주요 시책지표 74개' ▲ '도정 주요 시책지표 30개' 총 104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지표실적 평가(80%)와 전년도 정부합동평가(20%) 실적을 합산해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시흥시는 올해 평가에서 102.33점(가점 포함)을 획득해 경기도 역대 최고점수를 3년 연속 경신했으며, 3년 연속 모든 지표에서 최고등급(S등급)을 달성한 전국 유일의 기초자치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시흥(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유자녀 무주택 지원, 적정 수혜자 검토해야”

서울시의회

수혜 가구 수에 초점 두기보다
출생률 변화 등 목표로 설정해야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달성 목표를 수혜 가구 수로 설정한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가 정책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 재설정하라고 지적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내년 51억9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

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아이를 낳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서울살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가 마련한 사업으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임양)한 가구다. 단, 부모 모두 무주택인 경우여야 하며, 공공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않아야 한다.

시의회는 “출생률 제고 및 주거 안정이라는 사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수혜자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시는 본 사업의 달성 목표를 '주거비 지원 출산 무주택 가구 수'로 단순히 수혜 가구 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정책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출생률 변화' 및 '주거 안정성' 지표 등을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지원 종료 후에는 출생률 증가 기여도와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평가해 사업의 효용성을 분석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5 | 해질 / 17:15

11월 28일(木)
음력 : 10월 28일

수도권 날씨
-2 ~ 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3/4, 동두천 -4/5, 가평 -3/4, 파주 -5/4, 서울 -2/4, 양평 -2/4, 인천 1/5, 수원 0/4, 용인 0/4, 백령도 3/6, 평택 0/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6연승 질주' IBK기업은행, 한국도로공사 완파하고 2위 도약 /사진 뉴스스
▲종합격투기 전문단체 K MMA “여자부 시합 접수비 무료”

▲KOVO 출범 20주년 기념 BEST7 투표시작
▲LG, 새 외국인 투수 치리노스 영입...엔스 결별



▲SSG, 유망주 캠프 마무리...MVP 투수 박시후·야수 최준우
▲KIA, '우승 주역' 네일과 180만 달러에 재계약 /사진 뉴스스